

불자 세상보기



이도흠
한양대 국문과 교수

아베 정권의 우경화가 심각하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900여 명이 사망하고 국토의 70%, 국민 대다수가 방사능에 오염되고 있음에도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고 위안부를 부흥하고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교과서에 명도박으며 군국주의로 회귀하고 있다. 왜 아베는 이런 노선을 강화하고 있는가.

무엇보다도 일본 국민이 우경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근본적으로 신자유주의 및 이에 대한 일본 민주당의 정책 실패에서 기인한다.

자민당이 추구한 신자유주의의 결과, 2,800만 명의 노동자가 비정규직으로 전락하였으며 중산층이 대거 몰락했다. 근로격차가 소득과 자산의 격차, 교육격차와 건강격차를 야기하며 미래세대를 절망으로 몰아넣었다. 홀리스, 일용파견, 네트카페 난민이 증가하고 자살과 범죄율이 치솟았다.

이로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하던 자민당 대신 복지우선과 격차해소를 정책으로 내건 민주당으로의 정권교체 바람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간 나오토 정권은 882조 엔에 달하는 막대한 정부부채만 남긴 채 몰락하였다. 대중들은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민주당에 등을 돌리고 아베와 우경화 정책을 지지하였다.

지금 일본 국민들은 정리하고, 실업, 비정규직 등의 공포 속에서 권위에 의존하여 이 공포를 해소하려는 성향을 보이고 있고, 이를 아베 정권이 잘 이용하고 있다.

다음의 이유는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 때문이다. 오바마 정권은 미국 외교 중심축을 아시아로 옮기는 전략(Pivot to Asia)의 일환으로 일본과 연합하여 중국을 압박하려는 정책을 추구하며 일본의 군국화와 재무장을 은근히 지원하고 있다. 이런 구도 속에서 아베는 계속 영토분쟁을 일으켜 일본 국민을 민족주의적 선동에 동원하는 한편, 내정의 모순을 은폐하고 있다.

여기에 기름을 붓고 있는 것이 남북한이다. 독도는 우리가 실효적 지배를 하

고 있기에 이슈를 만들지 않는 것이 최상의 전략인데, 이명박은 20%대에 그친 지지율을 민족주의적 선동을 통하여 만회하기 위하여 직접 독도를 방문해 일본의 우익이 연대하고 국민을 동원할 수 있는 구실을 만들어주었다.

이러자 남북한의 우익들은 '적대적 공존'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었다. 일본에서는 연이어서 독도 관련 정책과 발언이 쏟아져 나오고 시민들은 이에 집회와 반한운동으로 화답하였다. 남한에서는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이나 친일파들,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극우세력들이 이들과 보조를 맞추며 교과서를 왜곡하고 있다.

이런 행위들에 동력을 제공하는 것은 남북한 사이의 냉전과 대결이다. 남북한은 작년에 전면전의 직전 상황까지 갔었다. 다행히 전쟁의 위기는 넘겼지만, 지금도 남북한 사이의 대결의 파고는 높다.

군국적으로는 한국과 일본 국민들이 동일성의 패러다임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동일성은 '차이'를 포섭하여 이를 없애거나 없는 것처럼 꾸민다.

동일성은 인종, 종교, 이데올로기 등

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를 동일성에서 분리하여 타자로 규정하고 자신과 구분시키면서 '배제'하고 이에 '폭력'을 행사하면서 동일성을 강화하기 마련이다.

이처럼, 여러 원인이 결합된 것이기에 일본의 우경화 및 군국주의화에 제동을 걸기는 쉽지 않다.

우선 동일성을 해체하고 서로 눈부처를 바라보는 화쟁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한국과 일본, 중국 시민들이 연대와 반한운동으로 화답하였다. 남한에서는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이나 친일파들,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극우세력들이 이들과 보조를 맞추며 교과서를 왜곡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공동의 교과서를 만들고, 지역에 기반을 두면서도 글로벌 시스템과 조화를 이루는 공동의 안보협력체, 경제협력체, 문화협력체, 환경협력체를 만들고 이를 통해 상품에서 지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것들을 서로 교환하면서 동아시아의 연대와 평화를 강화하는 평화의 선순환체제를 구축한다. 어느 정도 조건이 성숙하면 동아시아 시민의 회, 공동 정부, 공동 사법부와 군대를 구성하여 화쟁의 동아시아 평화체제를 수립하여야 한다.

社說

한국불교, '신뢰도 2등' 극복하자

앞으로 한국 사회를 짊어지고 갈 10, 20대 청소년과 청년들의 불교에 대한 신뢰도가 전 연령을 통틀어 가장 높게 집계됐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이는 2월 5일 발표된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하 기윤실)의 2013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기초보고서에 따른 것이다. 조사에 따르면 가장 신뢰하는 종교를 묻는 질문에 만19세~29세의 33.4%가 불교를 가장 신뢰한다고 답했다. 가톨릭은 50대에서 32.4%로 가장 높은 신뢰도를 자랑했다.

이는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가 2012년 11월 발표한 '한국의 사회·정치 및 종교에 관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와도 동일하다. 당시 조사에서도 한국사회에서 가장 믿음이 가는 종교를 묻는 질문에 20대의 26%가 불교를 가장 신뢰한다고 꼽았다.

다만 아쉬운 것은 전체적인 신뢰도가 가톨릭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봉사활동을 가장 열심히 하고 있고 실질적

도움을 주는 종교로는 개신교가 압도적으로 지지를 받은 것은 불교의 사회 참여는 갈 길이 멀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상대적으로 신뢰도가 낮은 30대 포교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이 같은 결과가 나온 이유는 최근 불교가 적극적으로 노동자, 다문화 가정 등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고 사회 소통 창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왔기 때문이다.

또한 범람, 마가, 헤빈, 정목 스님 등이 한국 사회의 힐링 열풍을 주도하며 국민 멘토로 자리매김한 것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스님이 SNS 스타로 거듭날 수 있는 시대다. 깨어있는 스님들의 한 발짝 앞선 시도가 불교를 'SNS 시대에서 가장 수혜 받은 종교'로 만들었다. 어려운 불교보다는 감성과 소통의 불교가 청년들에게 먹히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이들을 불교 안으로 포용할 수 있는 적극적인 포교 방안이 요구된다.

'문화재 자격증 장사' 불교성보 명든다

소문으로 떠돌던 문화재 복원 전문가들의 자격증 임대 장사가 꼬리가 잡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2월 4일 돈을 받고 문화재 기술자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과 이로부터 자격증을 대여 받은 보수건설업체 대표 등 34명을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입건했다.

문화재 수리기술자들은 문화재 보수건설업체에 자격증을 빌려주는 대가로 각각 1100만~3500만 원 씩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대구지방경찰청도 지난 1월 28일 자격증을 빌려준 단정 기술자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 역시 자격증을 대여하고 1년에 1200만~3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자격증을 대여받은 사람들이 유명 문화재보수에 참가했다는 점이다. 한 예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입건된 사람들은 예산 수석사 대응전, 순천 송광사 대응전 등

전국의 국보·보물·중요민속문화재 155건의 보수공사를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무자극 의사가 환자를 돌본 것과 같은 의미다.

이참에 문화재 전문가들의 자격증 관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해 놓은 국가 지정문화재의 관리를 문화재청과 같은 전문 기관이 맡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또한 중요 유적지의 문화재 복원을 할 때도 문화재전문위원들이 자문만 할 것이 아니라 심의 의결하게 해서 실질적인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화재의 정비와 복원을 전문으로 하는 문화재비복원공단과 같은 전문 기구의 설립도 고려해야 할 만하다. 재차 강조하지만 문화재 관련 정부 조직의 정비와 행정 전반에 대해 철저한 실태조사는 물론 제도적인 보완책이 시급하다.

사부대중 칼럼

뒷돈 받고 빌려주는 문화재보수자격증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
문화재 전문위원
육의전박물관장

문화유산은 다음세대까지 잘 보존해서 물려줘야 한다. 즉 당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만이 소유와 보존에 대해 결정할 권리가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화재와 관련하여 일부 전문가들의 독식과 그들만의 카르텔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문화재 관리 자체를 어렵게 만들어 관심 있는 시민과 학생들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다.

우리나라 문화재계는 비밀주의가 난무하고 '문화재 마피아'가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그들 마피아 집단에 들어가야 연구에 참여할 수 있고, 사업 이익도 챙길 수 있는 구조다. 서로 보호하고 특정집단의 비호도 받는다.

이런 식이라면 문화재의 원형 보존은 물론이거니와 앞으로 제대로 남아 있을 문화재가 몇이나 될지 의문이다.

우리나라 문화재의 보수와 보존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에게 종속돼

있다. 특히 보수기술자 자격증을 고액으로 임대하고 있으며 일부는 자격증을 처음부터 부업형태로 빌려주기 위해서 취득한다. 일부 사업자들은 현행법을 피해 편법을 동원, 자격도 갖추지 않고 나라의 귀중한 문화유산을 보수·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우리나라 문화재 보수기간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 짧은 것도 문제를 낳고 있다. 문화재보수 공사에 공사 기간을 두는 것은 문화재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확한 자료와 문헌이 남아 있지 않은 문화재 공사를 하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수시로 발생한다. 완벽하게 보수 공사를 진행하려다 보면 공사기간과 공사비 때문에 대충하고 넘어가기 마련이다. 현실성 없는 공사 기간으로 부실을 야기하고 있다.

다른 큰 문제는 언론이다. 일부 한 두 개의 언론을 제외하고, 나머지 언론들은 이들 마피아가 발표하는 것을 확인과 비판 없이 그대로 전달하기 급급했다.

이 중에는 문화재청 내부의 기록권 세력과 일부 업자와 이를 비호하는 언론권력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들

은 자신들의 사익을 위해서라면, 문화재 보수면허 대여업자 같은 사회적 약인을 비호해주기도 하고, 이념과 사상이 다른 자들과 합종연횡하며 개혁 세력을 끊임 없이 깎아내리기에 여념이 없다.

복구공사 중 검증을 통해 비판하거나, 승례문 완공 후 부실 공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언론과 전문가들에게 입에 담지도 못할 비난을 하고, 오히려 이들 마피아와 버리 집단을 비호하는 또 하나의 마피아를 자처하는 것이다. 이런 언론사 기사는 문화재의 악익자 사회의 악이다.

훼손된 문화재를 보수하기 위해서는 원인조사와 관련 기관끼리 공문을 주고 받는 데 몇 달 걸리고 여름에 설계하면 가을에 확정되고 찬바람 불기 시작할 때 공사를 시작해 연말에 공사를 마쳐야 하는 실정이다. 이러다 보니 산판에서 좋은 육수를 구입할 시기는 지나가고 결국 수입목재를 쓸 수밖에 없는 실정이 된다. 또한 목재와 흙을 주로 사용하는 우리나라의 현실로 볼 때 찬바람 부는 시기에 문화재 공사를 해서 이로운 것이

따라서 부실을 예방하기 위해서 단기

적으로 현행법상 보수업체 등록조건인 문화재기술자 4명, 기능인 6명 보유라는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

다시 말해 개별 문화재 보수 공사마다 보수기술자가 직접 현장에 참여해서 마칠때까지 책임을 지는 방법으로 개선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문화재 보수는 국가가 직영 또는 관리공단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보수기술자들을 팀으로 구성해 문제가 있는 문화재에 국가(문화재청)에서 직접 한 팀을 파견해 처음부터 끝까지 그 팀 책임하에 공사를 진행시킨다. 팀의 구성은 오래된 경험자와 신참으로 구성한다. 국가가 직영하면 입찰의 비리와 소수 업체의 독식, 자격증 대여 비리, 자본적 보조 사업의 비리는 없어질 것이다.

또한 팀으로 구성된 공사 실명제가 자연스럽게 정착되며 오래된 경험자들로부터 기술 전수도 쉬워질 것이다. 문화재계 병이 너무 깊다.

지금 개혁을 시작해도 늦지 않다. 이번에는 반드시 문화재 마피아를 뿌리 뽑아야 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해원 편집인 : 박해월 인쇄인 : 배성환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회사총 연방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실시간 뉴스 연방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연방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부 산 지 사 : 070-7697-5202
지사안내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령을 준수한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해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요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 글쓴이 : 해천법사
- 책자 안내**
-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 ⑨ 팔괘만다라 역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 글쓴이 : 해천법사
-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화해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경기도 광주시 오묘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영혼의 세계 (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흰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약국, 기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 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천광수련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